

포도 수확 후 과원관리 기술

필요성

포도 수확이 마무리되는 시기로 수세진단을 정확히 할 수 있으나, 대부분 과원관리를 소홀히 하는 시기임

포도나무가 자라는 시기(생육기)는 수관이 앞으로 덮여있어 수세진단이 어려우나, 잎이 모두 떨어진 낙엽기에는 가지를 그대로 볼 수 있어 정확한 수세판단 가능

또한 생육기 동안 병해충 발생이 심했던 과원은 낙엽 등의 병해충 잔재물을 소각하거나, 땅속에 깊이 묻어야 이듬해 효율적인 병해충관리 가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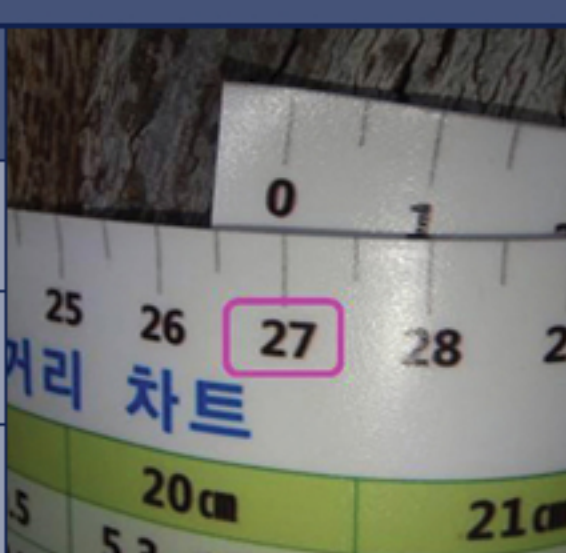
이듬해를 준비하는 시기

- ▶ 가지(신초)가 대부분 성장하지 않으며, 과일 비대 및 성숙에 사용했던 양분이 뿌리, 가지 등에 저장양분으로 축적하여 수체 충실도 향상
- ▶ 양분은 6~8월에 가지 내 탄수화물이 가장 낮고, 9월 중순~10월 하순까지 탄수화물을 빠르게 축적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임
- ▶ 저장양분은 다가오는 겨울철 저온과 건조에 대비해 나무를 보호하고, 이듬해 꽃눈(화아) 발육과 새가지의 초기 성장을 좌우함

수세진단 기준

- ▶ 포도나무의 수세진단 포인트는 잎의 색(엽색), 새 가지의 목질화(신초 등숙), 새 가지의 길이 및 심는거리(재식거리)와 나무줄기(주간)의 굵기 비율임
- ▶ 일반적으로 단풍시기는 조생종이 만생종보다 빨라 9월 하순~10월 상순이 되면 잎의 녹색 감소로 품종 특유의 단풍색을 나타냄
- ▶ 늦자란 새 가지는 10월에도 단풍이 들지 않고, 잎에서 합성된 탄수화물을 가지 생장에 사용하다가 서리에 의해 고사함
- ▶ 새 가지의 적정 길이는 캠벨얼리 품종 130~140cm, 거봉 품종 60~120cm이고, 병해충 방제를 충분히 했다면 저장양분 함량 높음
- ▶ 거봉 품종 유핵재배 시 나무가 차지하는 수관점유면적(열간거리 × 주간거리, m²)에 나무줄기의 단면적(cm²)을 나누어 값이 0.5~1.0이면 적정 수세임
- ▶ 수관 점유면적에 나무줄기의 단면적을 나눈 값이 0.5 이하면 강한 수세로 꽃떨이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숙아베기(간벌)해야 하고, 1.0 이상이면 심은 거리가 너무 넓어 수세가 떨어질 수 있음

〈포도나무 줄기 둘레에 따른 주간거리〉

구 분	주간둘레 26cm	주간둘레 27cm	
열간거리 3.0cm	8.9~17.9	9.6~19.3	
열간거리 3.3cm	8.1~16.3	8.7~17.5	
열간거리 3.6cm	7.4~14.9	8.0~16.1	

숙아베기에 의한 주간거리 확대

- ▶ 포도는 계획 밀식재배로 재식 4~5년차부터 숙아베기(간벌)해야 하는데도, 초기에 촘촘히 심겨진 나무를 그대로 유지하여 밀식장애 발생
- ▶ 겨울철에 가지치기(전정)할 때 수령이 4~5년정도 되고 수세가 강한 과원은 숙아베기함
- 숙아베기로 빈 공간은 숙아 낸 나무의 좌우 나무 앞부분(선단)에 전년도에 자란 가지를 수평으로 유인하여 공간을 채움
- ▶ 숙아베기에 의한 적정 주간거리는 품종, 토양 및 재배기술 등에 의해 차이가 있으나 캠벨얼리 삼목묘 5.0~7.0m, 거봉 삼목묘 10.0~12.0m임



포도 숙아베기 시 주지연장지 확보



숙아베기로 주간거리 확대

수확 후에도 병해충방제

- ▶ 포도 잎을 건전하게 유지하려면 생육기에 병해충방제를 철저히 하고, 수확 후에도 잎의 앞·뒷면이 흠뻑 묻도록 1회 정도 방제함
- ▶ 생육기 동안 갈반병, 노균병 등 피해를 많이 받았다면, 이듬해 효율적인 병해충방제를 위해 병든 잎을 모아 소각하거나, 땅속 깊이 묻음



병든 포도잎의 소각